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4호 [루계 제25132호] 주제 104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領導에 의하여 약동하는 조선의 힘과 기상을 떨치며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이 지식경제시대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변모됨으로써 승리자의 해인 2015년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해가고 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든 생산공정이 고도로 현대화되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확립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오수용동지, 조용원동지, 홍영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성동지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개진하도록 관리하는 설계집단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주시었으며 현대화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였다.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오늘 있다고 하면서 현대적으로 개진된 공장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판과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리고 사적자료와 사적물전시도 잘했다고 하면서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실시간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다고 하면서 이 공장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은 각별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었던 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이 공장은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맑아들공장, 중추공장, 핵심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빈터우에서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나라 기계제작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파

하시면서 이 공장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휴양소에 온것으로 생각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대하고 어려운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 현대화공사를 훌륭히 완공할수 있은것은 불타는 각오와 애국의 열정, 세계를 굽어보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배짱과 승리에 대한 신심,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투쟁한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 서 계 속

로동자들을 유해로동, 고열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킬수 있게 도금 및 열처리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였으며 생산자리를 보다 원만히 할수 있도록 현대적인 무선통신망체계도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하시였다.

공장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결과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그 질을 훨씬 개선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폭넓은 과학 기술을 습득하고 원격교육도 받을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도 훌륭히 건설해놓았으며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들과 합숙, 탁아소, 유치원도 흡잡을데 없이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 가지 기계제품들의 성능과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해하시고 모든 제품들을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기 위한 사업,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기 위한 사업, 공장의 안팎을 알뜰히 거두고 깨끗이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민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빙리에서 새로 건설한

다는 관점과 입장에서 생산구역과 생활구역, 교양구역을 명백히 구분하여 꾸리였으며 모든 생산건물은 물론 문화후생 시설까지도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완전히 떼벗어나고 있다고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와 농촌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단위들이 일떠서고 있는 때에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

을 한계 단 발전시킬수 있는 도약대, 기계제작공업부문 현대화의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로동계급들이 궁궐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배우며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창조와 건설은 철두철미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 3 면 으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끌어내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 라오른 현대화의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도 세차게 라빈지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현대화공사에서 땀과 열정, 지혜를 아낌없이 바친 일군들과

총업원들, 과학자, 기술자,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총업원들이 맨손으로 피대를 들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1950년 대 군자리로동계급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총업원들은 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일떠세워주시고 또다시 일터를 찾으시여

어둠이 짙어 가도록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나아갈 앞길을 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기어이 관철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작사 조광철  
작곡 장충심

절절하게 (♩=72)

1. 그 품이 없인 하루한시도 못사는 우리밥속에  
날 이갈 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 원  
수 님 결에는- 정으로 사는 인민이 있습니 다 원  
수 님 한분만- 우러러보며 끝없이 따릅니다

2. 인민을 위해 하늘의 별도 다 주는 어버이 품에 운명의 피를 더 굳게 잊고 품에도 안겨듭니다 원수님결에는 변심모르는 인민이 있습니다 원수님 그 뜻만 가슴에 안고 한마음 반듭니다

3. 그이와 함께 사선천리도 웃으며 헤쳐 넘으려 그이와 함께 영광만리를 끌까지 우리는 가려 원수님결에는 하나로 뭉친 인민이 있습니다 원수님 병도만 따르는 한길 영원히 가렵니다

원수님 계시여 조국도 있고 인민도 있습니다 원수님 한분만 믿고 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 선군대양의 혁명실록을 전하는 불멸의 명칭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힘원을 반영한 뜻깊은 이름들을 수많이 지어주시였다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전하는 뜻깊은 명칭들이 혁명조선의 청사에 찬연히 빛을 뿐리고있다.

희세의 천 출위인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워업의 활성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령도의 길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이 빛나고 주체조선의 냄새가 반영된 뜻깊은 이름들을 수많이 지어주었다.

선군대양의 혁명실록에 새겨진 고귀한 명칭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세기 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변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교대로부터 천주만대에 걸이 빛날것입니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헌신과 시대의 지향을 담아 김일성경기장이 되도록 뜻깊은 명칭들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 높이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87(1998)년 1월 북방의 6 000여 리 눈보라길을 헤쳐가며 자강도 인민들이 창조한 시대정신을 『강경전신』으로 명명해 주시었으며 뜻깊은

전승사에 새겨진 균위부대와 로병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 주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에 헌신과 헌신으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경전신』으로 명명해 주시었으며 뜻깊은

이어 가는 백찌산식 강행군 현지지도부의 길에 성강과 라

남의 봉화, 태천의 기상이 나래 치도록 하시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강선의 봉화를 지어주었다.

우리 인민의 고귀한 땀이 스민 사탕한 창조물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은정속에 기적을 떠이며 속

마다에 청년영웅도로, 흥주청년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원

산제염소 등의 명칭들이 새겨졌다.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에 기여한 광산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해 주시고 오늘

보다 더 좋은 평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일떠세운 목장지구에

는 『래일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행복을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리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 장차장의 불아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령산, 대홍단의 강자폭파, 류다른 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 풍정의 양어바다와 같이 선군으로 이름높은 사회주의 선군들을 편에 펼쳐주시였다.

천어비이십정으로 인민들이 무랄없이 어찌는 청도 물어주며 사방단아 정을 담아 『대홍』, 『홍단』, 『축복』이라 고 선군조선의 꽃강울들의 이름도 지어주었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철학적인 종자를 안고있는 대부작에 술영화 『민족과 운명』, 타월한 수명을 모서 아슬름의 아리랑이 기쁨과 행복의 아리랑으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반영한 대집단제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명도 절세위인의 천재적인 예지 속에 태여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명명된 창파거리, 창광원, 평양지하상점, 함흥대극장, 압록강, 고기평반국수, 량강도송장화, 코스모스미림원, 평양주 등과 더불어 인민의 생활은 날로 문명해지고 있다.

정녕 선군으로 강성하고 부통하는 내 조국의 승질로, 생활로 불리워지는 뜻깊은 명칭들은 배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끌까지 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에 기여한 광산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해 주시고 오늘

보다 더 좋은 평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일떠세운 목장지구에

는 『래일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행복을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리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 장차장의

불아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령산, 대홍단의 강자폭파, 류다른 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 풍정의 양어바다와 같이 선군으로 이름높은 사회주의 선군들을 편에 펼쳐주시였다.

천어비이십정으로 인민들이 무랄없이 어찌는 청도 물어주며 사방단아 정을 담아 『대홍』, 『홍단』, 『축복』이라 고 선군조선의 꽃강울들의 이름도 지어주었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철학적인 종자를 안고있는 대부작에 술영화 『민족과 운명』, 타월한 수명을 모서 아슬름의 아리랑이 기쁨과 행복의 아리랑으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반영한 대집단제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명도 절세위인의 천재적인 예지 속에 태여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명명된 창파거리, 창광원, 평양지하상점, 함흥대극장, 압록강, 고기평반국수, 량강도송장화, 코스모스미림원, 평양주 등과 더불어 인민의 생활은 날로 문명해지고 있다.

정녕 선군으로 강성하고 부통하는 내 조국의 승질로, 생활로 불리워지는 뜻깊은 명칭들은 배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끌까지 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에 기여한 광산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해 주시고 오늘

보다 더 좋은 평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일떠세운 목장지구에

는 『래일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행복을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리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 장차장의

불아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령산, 대홍단의 강자폭파, 류다른 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 풍정의 양어바다와 같이 선군으로 이름높은 사회주의 선군들을 편에 펼쳐주시였다.

천어비이십정으로 인민들이 무랄없이 어찌는 청도 물어주며 사방단아 정을 담아 『대홍』, 『홍단』, 『축복』이라 고 선군조선의 꽃강울들의 이름도 지어주었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철학적인 종자를 안고있는 대부작에 술영화 『민족과 운명』, 타월한 수명을 모서 아슬름의 아리랑이 기쁨과 행복의 아리랑으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반영한 대집단제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명도 절세위인의 천재적인 예지 속에 태여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명명된 창파거리, 창광원, 평양지하상점, 함흥대극장, 압록강, 고기평반국수, 량강도송장화, 코스모스미림원, 평양주 등과 더불어 인민의 생활은 날로 문명해지고 있다.

정녕 선군으로 강성하고 부통하는 내 조국의 승질로, 생활로 불리워지는 뜻깊은 명칭들은 배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끌까지 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에 기여한 광산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해 주시고 오늘

보다 더 좋은 평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일떠세운 목장지구에

는 『래일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행복을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리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 장차장의

불아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령산, 대홍단의 강자폭파, 류다른 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 풍정의 양어바다와 같이 선군으로 이름높은 사회주의 선군들을 편에 펼쳐주시였다.

천어비이십정으로 인민들이 무랄없이 어찌는 청도 물어주며 사방단아 정을 담아 『대홍』, 『홍단』, 『축복』이라 고 선군조선의 꽃강울들의 이름도 지어주었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철학적인 종자를 안고있는 대부작에 술영화 『민족과 운명』, 타월한 수명을 모서 아슬름의 아리랑이 기쁨과 행복의 아리랑으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반영한 대집단제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명도 절세위인의 천재적인 예지 속에 태여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명명된 창파거리, 창광원, 평양지하상점, 함흥대극장, 압록강, 고기평반국수, 량강도송장화, 코스모스미림원, 평양주 등과 더불어 인민의 생활은 날로 문명해지고 있다.

정녕 선군으로 강성하고 부통하는 내 조국의 승질로, 생활로 불리워지는 뜻깊은 명칭들은 배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끌까지 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에 기여한 광산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해 주시고 오늘

보다 더 좋은 평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일떠세운 목장지구에

는 『래일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행복을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리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 장차장의

불아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령산, 대홍단의 강자폭파, 류다른 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 풍정의 양어바다와 같이 선군으로 이름높은 사회주의 선군들을 편에 펼쳐주시였다.

천어비이십정으로 인민들이 무랄없이 어찌는 청도 물어주며 사방단아 정을 담아 『대홍』, 『홍단』, 『축복』이라 고 선군조선의 꽃강울들의 이름도 지어주었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철학적인 종자를 안고있는 대부작에 술영화 『민족과 운명』, 타월한 수명을 모서 아슬름의 아리랑이 기쁨과 행복의 아리랑으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반영한 대집단제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명도 절세위인의 천재적인 예지 속에 태여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명명된 창파거리, 창광원, 평양지하상점, 함흥대극장, 압록강, 고기평반국수, 량강도송장화, 코스모스미림원, 평양주 등과 더불어 인민의 생활은 날로 문명해지고 있다.

정녕 선군으로 강성하고 부통하는 내 조국의 승질로, 생활로 불리워지는 뜻깊은 명칭들은 배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끌까지 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에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땀이 토어져나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자 한다.

내화물생산의 주체화실현에 기여한 광산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해 주시고 오늘

보다 더 좋은 평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일떠세운 목장지구에

는 『래일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행복을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리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 장차장의

불아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령산, 대홍단의 강자폭파, 류다른 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 풍정의 양어바다와 같이 선군으로 이름높은 사회주의 선군들을 편에 펼쳐주시였다.

# 현대적인 축구선수숙소가 건설되었다

평양체육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부문의 품질적토대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평양체육단에는 나라의 체육 기술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심혈과 고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펼쳐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그러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선수들에게 더 훌륭한 훈련 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창조적 투쟁을 힘 있게 벌였다.

주체 6(1972)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평양체육단 종합훈련장을 찾으시주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합훈련장을 들여보시면서 봉구장을 잘 꾸리며 풍구선수들은 조선사람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완성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며 배우선수들의 훈련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또한 평양체육단 선수들이 훈련을 잘 하여 나라의 체육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체육단이 모든 면에서 다른 체육단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이렇듯 나아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한해를 들려인 평양체육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인민, 인민만을 위하여 아주시고 온갖 헌신과 헌신으로 막

김정, 리근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펼쳐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평양체육단에서는 체육기술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심혈과 고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선수들에게 더 훌륭한 훈련 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창조적 투쟁을 힘 있게 벌였다.

주체 6(1972)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평양체육단 종합훈련장을 찾으시주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합훈련장을 들여보시면서 봉구장을 잘 꾸리며 풍구선수들은 조선사람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완성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며 배우선수들의 훈련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또한 평양체육단 선수들이 훈련을 잘 하여 나라의 체육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체육단이 모든 면에서 다른 체육단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이렇듯 나아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한해를 들려인 평양체육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인민, 인민만을 위하여 아주시고 온갖 헌신과 헌신으로 막

나날에 선수들의 여러 종목훈련장들과 과학기술보급실이 새로 꾸려지고 2개의 종합훈련관과 친선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보수되었을뿐 아니라 풍차수리 한 보통강기술에 현대적인 축구선수숙소가 일어서는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졌다.

친선들과 식사실 등 모든 휴식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일상으로 갖춘 축구선수숙소가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남녀축구선수들

의 비약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고있다. 이룩된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체육단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선수들의 생활향상을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봉사시설도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쁨마다 신념의 메아리가 차넘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창조적 투쟁을 힘 있게 벌였다.

결사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국경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달려나갈수 있는 비약의 걸이 있다.

이 불변의 신념을 안고 당 제7차대회장을 향하여 결사관철의 밤구를 소리로 세차게 울려가는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졌다.

친선과 식사실 등 모든 휴식조건을 높은 수준으로 갖춘 축구선수숙소가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남녀축구선수들

의 경쟁을 힘 있게 벌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혁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혁철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세차게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한다는 소식이었다.

주체 100(2011)년 1월 대내외 주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이곳을 찾으시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위대한 장군님께 해설해드리는 영광을 지녔던 도서관판장 후 도서관판리용자수는 매일 무려

사, 원격교육 등 독자들의 요구와 편의에 맞게 도서관운영사업

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그 과정에 3대혁명봉은기, 모범체육단위의 영예와 2중 26호 모범기대영예상을 정위하였으며 전국의 본보기 단위가 되어 13살 나이 아들이 뜻하지 않은 일로 함평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하였던 편지에 쓰면서 출혈성쇼크 3도에 이르러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최종증상에서 아들이 소생할 수 있는 것은 고마운 사례이다. 9차례의 고강도 수술과 함께 빙미니는 암울주위, 수많은 사람들을 부른다.

그 고마움에 경정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가치와 비용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인민, 인민만을 위하여 아주시고 온갖 헌신과 헌신으로 막

나날에 경정의 헌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황해북도도서관에서

류영순동무는 『년중에 좋은 날도 많지만 대인의 헌신은 아름지지 않으므로 우리 도서관에서 찾아주신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인민, 인민만을 위하여 아주시고 온갖 헌신과 헌신으로 막

나날에 경정의 헌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준공한지 몇해 되지는 않지만 도서관은 청소년들과 대학생, 근로자들의 정든 배움의 집으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되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던 바로 여기에 대내외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도서관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고 훈련장을 찾았

